

‘RE100 국가산단’ 유치…친환경 산업도시 도약

함평군, 군민설명회…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감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함평군이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향한 군민의 뜻을 한데 모으며, 친환경 산업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군은 최근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RE100의 이해 및 필요성’을 주제로 군민설명회가 개최됐다고 17일 밝혔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적 에너지 전환 캠페인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글로벌 핵심 이행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RE100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은 이에 발맞춰 친환경 산업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 RE100 국가산단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100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첨단·친환경 기업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산

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RE100의 중요성과 국가산단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는 함평 출신 진우삼 한국 RE100 위원회 위원장이 초청 강연자로 나서, RE100의 개념과 국내의 추진 동향, 그리고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와 전망을 제시했다.

교육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 군민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농지 전용 필요 여부, 허가 절차, 기존 영농과의 병행 가능성 등을 질문하며 RE100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성, 지역 주민 참여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며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에 대해 진우삼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RE100 특별법’을 제정해 구체적인



함평군은 최근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RE100의 이해 및 필요성’을 주제로 군민설명회가 개최했다. 강연에는 함평 출신 진우삼 한국 RE100 위원회 위원장이 초청 강연자로 나서, RE100의 개념과 국내의 추진 동향, 그리고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와 전망을 제시했다.

제도·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진 위원장은 “RE100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핵

심 전략”이라며 “군이 선제적으로 RE100 국가산단을 유치한다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이상의 군수는 “RE100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발표된 만큼,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모든 행

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산단 유치에 많은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나주 어린이들 순수한 목소리로 ‘가을 감성’ 전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21일 에너지공대서 정기연주회

나주시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순수한 목소리로 가을의 감성을 전할 제9회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진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7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강당에서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나주 판타지아’를 개최한다.

올해 정기연주회는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음악적 감수성을 담아낸 다양한 무대로 꾸며지며, 합창단의 순수한 목소리와 풍성한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대에는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

단과 이앤아이 앙상블이 함께 출연해 맑고 청아한 합창의 감동과 생동감 넘치는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1부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치기 차가 초코 슈, 바람의 빛깔 등 관객에게 친숙한 곡들을 합창단 특유의 조화로운 하모니로 들려줄 전망이다.

2부에서는 이앤아이 앙상블의 특별 무대가 이어지며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합창단과의 풍성한 협연을 완성한다.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연주회와 교류공연뿐 아니라 지역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을 키우는 문화예술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열린 제21회 부산 국제합창제에서 청소년 부문 3위와 심사위원단 금상을 수상해 올해 부산 영화의

전당과 벅스코에서 열린 전체 경연 참가팀 중 유일한 국내 상위 입상 사례로 주목 받았다.

박의영 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은 “이번 정기연주회는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자리”라며 “맑은 목소리로 시민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병대 시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은 나주의 미래를 밝히는 문화사절단으로 아이들의 목소리 속에는 지역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다”며 “이번 공연이 시민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예매 없이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나주=조합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해남 명랑해상케이블카 수능 수험생 이벤트

연말까지 수험표 지참 학생 1000원에 이용 가능

명랑해상케이블카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천원 케이블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천원 케이블카’ 이벤트는 ‘천원식사’, ‘천원주책’, ‘천원빵집’ 등 고 물가시대에 물가안정과 한해 동안 시험 준비로 고생한 수험생들과 가족들께 조금이나마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기획됐다.

‘천원 케이블카’ 이벤트는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들은 케이블카 이용요금 1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바다가 막혀 있는 일반케빈과 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 크리스탈 캐빈도 모두 다 같이 1000원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험생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된다.

또 같이 방문하는 동반인들은 최대 3인까지 3000원 할인이 적용돼 친구·

가족과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명랑해상케이블카가 위치한 울돌목은 예로부터 이순신 장군의 기운이 깃든 명랑대첩의 역사적인 현장으로 유명한데,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위에서 이순신 장군의 기운을 받으면서 다도해의 아름다운 파노라마 풍경으로 힐링을 하고, 그동안 시험 준비로 받은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남은 명랑해상케이블카 외에도 다양한 관광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단풍이 가장 마지막에 머무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1년 동안 힘든 수험생활을 함께한 가족들이 늦기를 단풍 여행으로 해남을 방문해 올해의 마지막 단풍을 즐기고, 삼치, 전복, 한우 등 다양한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남도 최고의 식도락 여행을 즐길수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진도 ‘행복한 엄마모임’ 성료

지친 육아 몸·마음 건강 챙겨

진도군은 최근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3기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엄마모임은 임신과 육아로 지친 엄마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3기 엄마모임은 서로 알아가기와 책 육아법 배우기, 산전·산후 관리 교육, 꽃꽂이 수업, 자동차 열쇠 지갑 만들기, 천연 아로마 오일 만들기, 베이비 마사지, 촉감 놀이, 영유아 하임리히법 이론과 실습 등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마지막 날에는 진도캐티파르크 아리랑식물원에서 국화를 감상하며 ‘행복 뽕기둥’ 행사를 통해 육아에 지친 시간을 위로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 참가자는 “엄마모임에서 육아에 대해 고민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엄마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육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영암 청소년들이 최근 2박 3일간 일본 간자키시에서 진행된 한·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은 영암 삼호서중 학생들이 일본 치요다중 방문 모습.

영암 청소년들 일본 간자키시서 국제교류·문화체험

남주중·삼호서중 21명 참여…현지 방문 친목 다져

영암 청소년들이 최근 2박 3일간 일본 간자키시에서 진행된 한·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영암군과 간자키시가 추진한 이번 교류는 양 국가 청소년이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와 국제 감각을 함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류에는 영암 남주중학교와 삼호서중 학교 학생 21명이 참여해 자매학교인 간

자키중학교와 치요다중학교를 각각 방문했다.

영암과 간자키시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함께 듣고, 전통놀이와 유카타 입어보기, 소오란부시 공연 등 문화·예술로 친목을 다졌다.

특히 간자키시가 개최한 환영행사에서는 상호 교류협력 강화 논의도 진행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지속 확대의 뜻을 모았다.

영암군과 간자키시의 인연은 지난 2008년 간자키시의 ‘왕인 천만궁 개발 계획’으로 시작돼, 2016년 학교 간 자매결연으로 확대됐고, 올해 7월에는 양 도시가 지속가능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자매학교 교류로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됐다”며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영암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과 자긍심을 동시에 높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장성, 올해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내달 12일까지 접수

장성군은 12월 12일까지 올해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한국장학재단에 올해 2학기분 국가장학금 신청이력이 있어야 한다.

또 보호자가 2022년 11월 11일 이전에 자정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문화교육과(061-390-8572)로 연락하면 된다.

신청은 12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

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국가·교내 장학금이 확정되는 2026년 1월 무렵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성군은 2023년부터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등록금 실납부액을 학기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문화교육과(061-390-8572)로 연락하면 된다.

장성=이항범 기자 hnb6699@gwangnam.co.kr